

-(으)니까요?

~할까요? ~일까요?

주어에 따라 상대방에게 향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향하기도 하는 질문입니다. 주어가 ‘우리’이면 제안이 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궁금해하며 추측하는 말이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 니까요?	가다 → 갈까요?
받침 있음	- 을까요?	먹다 → 먹을까요?
ㄹ 받침	- 까요?	만들다 → 만들까요?
제안	주어가 우리	같이 갈까요?
추측	제3자	비가 올까요?
과거 추측	- 았/었을까요?	벌써 갔을까요?

■ 언제 쓰나요

주어가 ‘우리’이면 상대의 대답을 청하는 제안이 됩니다. 같이 갈까요? 결정이 아니라 질문이기 때문에 -(으)니까보다 부드럽고, 거의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.

주어가 제3자나 상황이면 같은 형태가 추측이 됩니다. 내일 비가 올까요? (비가 올 것 같아요?). 이때는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,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며 상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.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, ㄹ 받침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는 만들까요?가 됩니다. 과거의 일을 추측할 때는 어미 안에 시제를 넣습니다. 벌써 갔을까요?

■ 예문

- 1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?
- 2 제가 도와드릴까요?
- 3 내일 비가 올까요?
- 4 이 옷 어떨까요?
- 5 벌써 도착했을까요?
- 6 창문을 열까요?

■ 비교

-(으)니까

질문은 결정을 열어 두고, -(으)니까는 결정을 알립니다. -(으)니까요?로 먼저 묻고, 상대가 동의하면 바꿔 쓰세요.

갈까요? (갈까?) / 갑시다. (가자)

-(으)니까요?

-(으)니까요?는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묻고, -(으)니까요?는 둘이 무엇을 할지 묻습니다. 앞의 것은 더 편한 말투이며 선택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깁니다.

같이 갈까요? (같이 가는 게 어때요?) / 같이 갈래요? (같이 가고 싶어요?)

-겠-

추측에서 -(으)니까요?는 상대의 생각을 묻고, -겠어요는 그 자리에서 받은 자신의 인상을 말합니다.

맛있을까요? (맛있을 것 같아요?) / 맛있겠어요. (맛있어 보여요)

■ 주의

- ✗ **저녁을 만들을까요?**
○ **저녁을 만들게요?**
ㄹ 받침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을을 덧붙이지 않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면도 같은 방식입니다.
- ✗ **제가 먼저 갈까요. — 결정을 알리는 말로 (×)**
○ **제가 먼저 갈게요.**
이 어미는 항상 묻는 말입니다. 자신이 정한 일을 알릴 때는 -(으)니까요를 씁니다.
- ✗ **그 사람이 벌써 갈까요?**
○ **그 사람이 벌써 갔을까요?**
이미 끝난 일을 추측할 때는 어미 안에 과거를 넣어야 합니다. -았/었을까요?